

기독교 창작무용 「나를 통하여」 작품에 대한 연구

강미리 서울예술신학교 교수

요 약

본 연구는 기독교 창작무용 작품 「나를 통하여」의 분석을 통해 작품의 구조와 의미를 고찰하고, 기독교 창작무용의 예술적·신학적 가치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독교 창작무용은 신체 움직임을 통해 신앙의 메시지와 영적 경험을 표현하는 예술 장르로, 예배성과 공연예술성을 동시에 지니며 현대 기독교 문화 안에서 중요한 표현 양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무용은 비구술적 언어(nonverbal language)의 기능을 통해 복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회중의 능동적 참여를 이끄는 예배적 역할을 수행한다(조선하·박순자, 2016). 이와 같이 기독교 창작무용은 인간의 내면과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를 비언어적 움직임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신학적·예술적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이러한 기독교 무용의 이론적 배경은 성경적 신체관에서 찾을 수 있다. 기독교에서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으로 이해되며, 신체를 통한 찬양과 경배는 신앙의 중요한 표현 방식으로 여겨진다. 구약성경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한 장면을 통해 춤이 영적 기쁨과 헌신의 표현으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시편 149:3), 이는 현대 기독교 무용의 신학적 근거가 된다. 또한 기독교 창작무용은 단순한 공연예술을 넘어 영성과 예배성을 동시에 지닌 행위예술로 이해되며, 신앙의 내적 경험을 상징적 움직임으로 형상화하는 특징을 가진다(강은혜·박순자, 2020).

기독교 창작무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독교 영성, 신앙고백, 치유와 회복, 구원, 자유, 사랑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초기 연구에서는 기독교 영성과 예배무용의 상징성 및 표현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정선경, 2011; 이다영, 2011; 안지영, 2012), 이후에는 실존주의와 분석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바탕으로 무용창작의 예술적 확장 가능성을 탐구하였다(이예랑, 2016; 황시예, 2020). 최근에는 한성대학교 대학원을 중심으로 「Born-Again」, 「그 사랑」, 「The Healing」, 「Euangelion」, 「컴백홈(Come Back Home)」 등 기독교 세계관과 영성을 기반으로 한 창작무용 작품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신앙적 메시지와 예배적 예술성을 무용언어로 형상화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하진선, 2022; 이연호, 2024; 한영실, 2024; 장미희, 2024; 김은아, 2025).

이에 본 연구자는 기독교 창작무용이라는 표현 양식을 바탕으로 작품연구의 흐름을 계승할

필요성을 가졌으며, 「나를 통하여」를 안무하여 신앙적 간증과 선교적 의미를 지닌 예술 행위로 해석하였다. 작품 속 움직임은 자기중심적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과정을 상징하며, 이를 통해 관객에게 영적 공감과 신앙적 성찰을 유도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작품분석을 병행하였다. 관련 단행본, 학술논문, 학위논문, 성서 자료 등을 고찰하였으며, 2025년 12월 11일 강남씨어터에서 공연된 「나를 통하여」의 실황 영상과 안무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작품은 시편 21편 13절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순종의 신앙고백을 표현하였다. 전체 구성은 총 2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은 맨손 움직임을 중심으로 인간 존재 자체의 예배성과 내면의 헌신을 상징한다. 발 디딤, 호흡, 반복 동작 등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땅과 삶의 의미를 드러내며, 수직적 공간 사용을 통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을 표현하였다. 제2장은 흰 천을 활용하여 성령과 하나님의 영광, 임재의 확장성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하였다. 흰 천의 흐름과 공간 확장은 인간 중심의 예배에서 우주적 예배로 확장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연구 결과, 본 작품은 예술적으로 한국창작무용의 전통적 호흡과 정서를 기반으로 기독교 영성을 융합하였으며, 반복 구조와 상징적 움직임을 통해 영적 몰입과 예배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비가시적 영성을 움직임과 공간 이미지로 형상화함으로써 무용의 초월적 표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신학적으로는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해하는 ‘몸의 신학’을 구현하였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창조신학적 세계관과 삶 자체가 예배라는 ‘선교적 예배관’을 드러내었다.

결론적으로 「나를 통하여」는 단순한 찬양 안무를 넘어 인간 존재의 예배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한국창작무용의 언어로 구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독교 창작무용의 학문적 정립과 예술적 확장 가능성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향후 다양한 기독교 창작무용 작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기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기독교무용, 창작무용, 예배무용, 작품분석, 기독교세계관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기독교 창작무용 「나를 통하여」 작품에 대한 연구	발표자	강미리
		논찬자 (소속)	손문미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심리상담대학원 교수)

기독교 창작무용 「나를 통하여」는 예배와 예술의 경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한국창작무용 안에서 기독교 영성을 구현하고자 한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됩니다. 본 작품은 단순히 찬양의 내용을 몸짓으로 재현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 존재의 내면적 신앙고백과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을 상징적 움직임으로 형상화하였다는 점에서 예술적 가치가 드러납니다. 특히 한국춤 특유의 호흡과 디딤, 정중동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기독교적 메시지를 표현하였다는 점은 기존 서구 중심의 워십댄스와 차별화되는 미학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는 개인적 신앙고백에서 출발하여 ‘땅’, ‘하늘’, ‘바다’, ‘모든 만물’로 확장되는 구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공동체적 신앙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작품의 신학적 상징성이 돋보입니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창작무용의 미학과 기독교 영성을 융합하려는 시도를 통해 기독교 예배무용의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1장에서 맨손 움직임을 통해 인간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도구로 제시한 부분은 매우 인상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화려한 장치나 기술적 효과보다 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신학적 의미를 강조하며, 기독교 예배무용의 본질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 움직임과 호흡 중심의 안무는 관객에게 묵상과 기도의 정서를 전달하며, 예배적 몰입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제2장에서 활용된 흰 천은 본 작품의 상징체계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예술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흰 천의 흐름은 성령과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며, 무용수의 신체 움직임을 넘어 공간 전체를 영적 이미지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라는 가사와 결합된 장면은 인간 중심의 예배를 넘어 우주적 찬양으로 확장되는 신학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기독교 창작무용이 단순한 공연예술이 아니라 상징과 영성을 담아내는 예배적 예술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본 연구는 작품의 상징체계와 신학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몇 가지 보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연구자 본인이 직접 안무한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분석(autoethnography), 자기연구(self-study), 혹은 실행연구(practice-based research)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어떠한 질적 연구 설계를 기반으로 작품을 분석하였는지, 그리고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론적 절차를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보완된다면 연구의 학문적 타당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구에서는 작품이 관객에게 “영적 공감과 신앙적 성찰”을 유도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실제 관객 경험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인지, 혹은 연구자의 해석적 관점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술 연구에서 ‘신학적, 선교적, 예술적 의미의 구현’은 창작자의 의도와 실제 수용자의 경험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관객 설문, 심층 인터뷰, 공연 후 피드백 분석 등과 같은 관객 수용 연구(audience reception study)와 질적 연구방법론이 함께 적용된다면, 기독교 창작무용의 예배적·신학적 효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하자면 「나를 통하여」는 한국창작무용의 미학과 기독교 영성을 조화롭게 융합한 작품으로서, 몸을 통한 예배와 영성 표현의 가능성을 제시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됩니다. 또한 본 연구는 기독교 창작무용을 단순한 공연예술이 아닌 신학적·예배적 예술로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에는 연구방법론의 객관성과 수용자(관객 및 무용수) 경험 분석이 함께 보완된다면, 기독교 창작무용 연구가 보다 체계적인 학문 영역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토론을 위한 질문

1. 본 연구는 연구자 본인이 직접 안무한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분석(autoethnography), 자기연구(self-study), 혹은 실행연구(practice-based research)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 1) 이에 대해 본 연구를 질적 연구방법론 중 어떠한 연구 설계로 이해할 수 있는지, 또한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론적 근거와 검증 절차를 적용하였는지 궁금합니다.

2. 연구에서는 작품이 관객에게 “영적 공감과 신앙적 성찰”을 유도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실제 관객 경험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인지, 혹은 연구자의 해석적 관점에 기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2) 향후 연구에서는 관객 설문, 심층 인터뷰, 공연 후 피드백 분석 등과 같은 관객 수용 연구(audience reception study)를 통해 기독교 창작무용의 예배적·신학적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3. 본 연구는 “몸의 신학”, “선교적 예배관”, “창조 신학적 세계관” 등을 무용언어로 형상화하였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3) 다만 이러한 신학적 해석이 실제 무용수와 관객의 경험 속에서도 확인된 것인지, 혹은 연구자의 예술적·신학적 해석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기독교 예술 연구에서 신앙적 해석과 학문적 객관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026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